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기억의 캔버스

웃는 듯 우는 듯 표정조차 아뜻했지만 멈출 기미는 없...

노을들 가장변에 붙어버어늘 휘휘 늘어진 가야지에...

엄마가 왜 저렇게. 엄마를 말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사이 엄마는 비틀비틀 쓰러지듯 마루에 누워 버...

지나간 일 혹은 남아 있는 기억들은 언제나 채색을...

기고



조귀임 전 광주 백운초등 교사

인구절벽이 부른 총체적 난국

모나고 까칠한 성격의 몇몇 아동들이 담임말에 고분고...

담임기피 현상은 아이러니한 교육현장의 현수소를...

작년에 시내 모초등학교 전교생이 57명이란 말을...

치원 아동수가 적어 폐원한 곳도 여러곳이고 통폐합하...

광주일보가 전한 기사 내용은 오늘의 인구감소 현실...

자손만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야 할 우리 고향 광주에...

기고



박영길 순천 국유림관리소장

봄철 산불 예방에 모두 동참해야 할 때

로 그려지고 있다. '선운사 동구'에서는 동백꽃이 막걸...

때 물 자원이 많은 깊은 저수지에서 하면 불순물이나...

매실 주산 단지가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 봄을 알리는...

社說

혼탁 치닫는 조합장 선출... '돈 선거' 막아야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엇그제 조합장 선거와...

광주·전남 경찰청도 지금까지 지역 조합장 선거와...

경전선, 생태도시 순천 도심 우회 꼭 관철돼야

경전선 전철화는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거쳐 부산 부...

여태껏 착공조차 되지 않은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순천시와 전남도는 광주-순천 구간 중 5km가량이...

우려스러운 것은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이 재연될...

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달 8일 실시되는...

으로 3등분돼 도시 발전에 지명적인 저해 요인으로...

경전선이 도심을 관통하면 교통 체증과 철도 소음...

無等鼓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김광섭 시인(1905-1977)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비둘기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일으켜 2009년에는 유해 야생...

하지만 지자체장 허가 없이 비둘기를 포획·살처분하...

오늘도 도심의 골칫거리이자 민원을 유발시키는 '기피...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